

가정 예배 모범

- 2022_02_20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값없이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시편 74편 1-11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시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절)

▶ 시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 대적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멈추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살아가다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수록, 안정된 환경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2) 곤경에 처한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도합니까?(10,11)

▶ 곤경에 처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시인은 비록 대적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감사의 기도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실천하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